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2011. 08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2011년 8월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

1.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1.1. 개인신용평점의 정의 및 목적

- 개인신용평점은 각 개인에 대한 수많은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위험도)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이며, 각 점수는 상대적인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은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지표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 ※ 금융회사가 개인과 신용거래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개인신용평점을 참고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와 같은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가 제공하는 개인신용평점(CB Score)이 있다면, 각 금융회사에는 업무목적에 따라 개발·활용하는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 CSS)이 있습니다. 대출승인/신용카드발급, 한도/금리 결정 등 각종 금융거래 의사결정은 이러한 CSS를 기준으로 주로 이루어지며, KCB 개인신용평점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참고지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 소개]

- CB사 신용평점은 전국민(전체 신용거래인구)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비해,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은 해당 금융회사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신용평점입니다.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내부 거래정보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주로 반영되고, CB사 신용정보도 일부 사용됩니다.
- 각종 신용거래의 승인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은 금융기관 내부 신용평점과 개인이 제공한 소득/직장정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평점(Application Score): 신용거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점으로, 대출 승인여부나 신용카드 발급여부와 같은 신규 거래 개설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 행동평점(Behavior Score): 금융기관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마다 향후 부실 가능성을 다시 평가하는 신용평점으로, 대출 연장여부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 결정에 활용됩니다.

2. 주요 평가부문

2.1. 개요

- 개인신용평점은 현재와 과거의 신용거래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되며, 평가 활용 정보는 특징에 따라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정보, 신용조회정보의 다섯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KCB 개인신용평점에는 신용조회정보를 제외한 네 가지 부문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부문	설명	활용 비중 ^{주1)}	
		KCB	미국 ^{주2)}
상환이력정보 (Payment History)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 (연체 정보)	25%	35%
현재부채수준 (Outstanding Debt)	현재 보유 채무의 수준 (대출금액,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35%	30%
신용거래기간 (Length of Credit History)	신용거래 기간 (최초/최근 개설로부터의 기간 등)	16%	15%
신용형태정보 (Type of Credit Used)	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 (상품별 계좌건수, 활용비율 등)	24%	10%
신용조회정보 (Pursuit of New Credit)	새로운 신용거래 활동 정보 (최근 조회건수 등)	0% ^{주3)}	10%

주1) 제시된 비중은 전고객 평균이며, 개별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적용됨

주2) FICO Score(파이코 스코어) 기준

주3) 금융미거래자의 신용등급 부여 목적에 한하여 활용(3.5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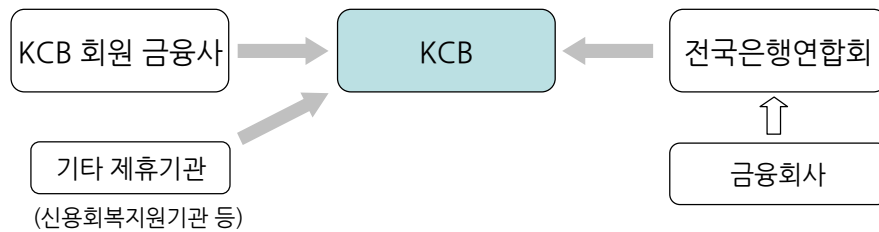
※ 미국의 대표적 신용평점인 FICO Score(파이코 스코어)와 비교 시, 평가부문 별 정보 활용비중은 대체로 유사하나, 상환이력(연체 정보) 비중은 해외보다 낮고 신용조회정보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2.2. 평가기초정보의 수집·관리

- KCB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제휴 금융회사(KCB 회원사) 등을 통해 고객의 사전 동의^{주)}에 따라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거한 고객의 사전 제공·활용 동의 필요

- 정보 수집 흐름도



-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18조 제 2항 및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기록 보존 및 신용평가 활용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파산, 압류 등 법원판결정보는 10년, 연체, 추심, 공공기록 등 채무불이행 정보는 7년간 신용평가에 활용 가능

3. 평가부문별 상세 설명

3.1. 상환이력정보(Payment History)

[정의]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과거 채무상환을 미룬 경험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주로 연체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유형] 상환이력정보는 정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보유형	내용	비고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전국은행연합회 ^{주)} 에서 수집 -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공공정보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정보로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수집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정보 - 법원판결 채무불이행 정보 등 - 국세·지방세·공과금 체납 정보	
CB연체정보	KCB와 제휴된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KCB가 제휴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비금융권 연체정보	예) 유통, 통신, 신용회복지원

주)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업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홈페이지(www.kfb.or.kr → 신용정보업무)를 참조

[수집·관리] 정보유형별 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및 활용기간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 기준 및 내용 ^{주)}	활용기간
신용도판단정보	전국은행연합회	5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인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공공정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채무불이행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1,000만원 이상, 1년(3회) 이상 세금·공과금 체납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CB연체정보	KCB	5영업일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인 KCB 회원사 연체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채무불이행정보		3개월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인 비금융권 연체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등 전국은행연합회가 수집·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홈페이지 : www.kfb.or.kr→신용정보 업무→규약해설)을 참조

[신용평점에의 영향] 연체가 없는 건전한 상환이력은 신용평점에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채무를 적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이력정보(연체)로 인해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기울이고, 만약 연체 상태라면 가급적 신속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체 기간이 장기일수록, 금액이 클수록,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
 - 5영업일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인 연체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며, 특히 연체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 단기간 연체 후 즉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과거 연체 기록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영향도가 감소
 - 연체 상환 후 신용평점은 연체 전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
 -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시간 경과에 따른 회복이 빨라집니다. 반면, 장기연체는 단기연체 대비 채무상환 후 더 오랜 기간동안 신용평점에 반

영됩니다.

- ※ 정부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11년 10월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는 상환후 최장 3년까지만 신용평가에 활용될 예정임

3.2. 현재부채수준(Outstanding Debt)

[정의] 대출 등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정보유형] 현재부채수준은 크게 대출정보 및 카드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유형	내용	비고
대출정보	대출 거래의 개설/해지 이력 및 대출금 상환 내역	
카드정보	카드 거래의 발급/해지 이력 및 이용 실적 내역	

[수집·관리] 정보유형별 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및 활용기간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 기준 및 내용 ^(주2)	활용기간
대출정보	KCB,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대출계좌 해지후 5년
	KCB	대출금 상환이력	최근 1년
카드정보	KCB, 전국은행연합회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카드해지후 5년
	KCB	카드이용실적	최근 1년

[신용평점에의 영향] 적정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면서 상환이력을 누적하면 신용평점에 긍정적이지만, 현재부채수준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과도한 대출 보유는 부정적 영향
 - 높은 부채수준은 미래의 높은 상환부담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이 클수록 리스크가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대출상환은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과도한 카드 사용은 부정적 영향

- 카드 부채수준의 지표로 이용금액 수준 및 여유한도 부족 여부를 활용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부여한 한도는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의 완충역할을 하며, 잔여한도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신용 위험의 신호 중 하나로서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부여받은 한도를 합산한 총합에 대비하여 이용 수준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참고) 미국(파이코 스코어) : 10%~50% 미만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3.3. 신용거래기간(Length of Credit History)

[정의] 신용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기간을 의미합니다.

[정보 유형별 수집·관리] 신용거래기간은 대출정보 및 카드정보의 거래내역에서 유래합니다.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 기준 및 내용	활용기간
대출정보	KCB,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
카드정보	KCB, 전국은행연합회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

[신용평점에의 영향] 신용거래기간이 장기일수록 신용평점에 긍정적입니다.

- 정상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긍정적 영향
 -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험을 쌓은 고객은 단기 신용거래자(예 : 신용카드를 갖 개설한 사회초년생)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낮게 나타납니다.
- 적정한 신용카드 거래 유지는 긍정적 영향
 - 신용거래 경험이 없으면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無신용거래보다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3.4. 신용형태정보(Type of Credit Used)

[정의] 여러 형태의 신용거래를 얼마나 적절히 이용하는지의 정보입니다.

[정보유형] 신용형태정보는 대출정보 및 카드정보의 거래내역에서 유래합니다.

정보유형	내용	비고
대출정보	대출 거래의 개설/해지 이력 및 대출금 상환 내역	
카드정보	카드 거래의 발급/해지 이력 및 이용 실적 내역	

[수집·관리] 정보유형별 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및 활용기간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 기준 및 내용	활용기간
대출정보	KCB,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대출계좌 해지후 5년
	KCB	대출금 상환이력	최근 1년
카드정보	KCB, 전국은행연합회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카드해지후 5년
	KCB	카드이용실적	최근 1년

[신용평점에의 영향] 대출 및 카드 거래의 적절한 이용패턴은 신용평점에 긍정적이나, 특정 이용패턴은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금리 유형의 대출상품 거래 비중이 클수록 부정적 영향 가능
 - 대출상품은 가급적 금리가 낮은 유형부터 높은 유형으로 차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1금융권 대비 제2금융권 대출 개설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대출 거래기관 수가 과다하면 부정적 영향 가능
 - 여러 금융회사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는 것은 고객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채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기간에 집중적인 금융거래 개설은 부정적 영향
 - 단기간(예 : 3개월 또는 6개월내) 대출 및 카드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증대되므로 필요한 신용거래만 선별하여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5. 신용조회기록의 활용 여부

- KCB 개인신용평점은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 선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용조회기록을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근 3년간 신용거래가 전혀 없어서 신용평가가 어려운 고객에 한하여,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용개설용 조회기록만을 평가에 일부 활용합니다.

4. KCB 개인신용평점의 적정성

4.1. 성능지표의 적정성

- 성능지표란 개인신용평점의 목표인 각 개인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가(예측력)와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안정성)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 지표 값은 예측력 지표는 클수록, 안정성 지표는 작을수록 신용평점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성능의 적정성은 통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별첨자료 참조

구분	성능 지표	적정 기준치 ^{주)}	당사 모형
예측력	K-S(Kolmogorov-Smirnov)	50 이상	충족
	Divergence	1.0 이상	충족
	GINI	0.6 이상	충족
안정성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0.1 미만	충족

주) 통상적 실무기준의 예시를 언급한 다음 문헌 참조

- Elizabeth Mays, Handbook of Credit Scoring, Glenlake, 2000

- Raymond Anderson, The Credit Scoring Toolki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고] 개인신용평점 모니터링

- 당사는 개인신용평점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다양한 성능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검토하는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수 고객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쳐 개인신용평점의 전체적 분포와 성능에 현저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환경 변화 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신용거래 행태 변화 예) 특정 금융상품의 이용 증가 추세
 - 정부의 정책 변경 예) 소액/단기연체 활용기간 축소
- 개인신용평점 모니터링을 통해 KCB 개인신용평점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4.2. 개발 인력의 적정성

- 개발 인력 현황('10.12월말 기준)
 - 신용평점모형 등 솔루션 개발 인력 : 35명
(개인신용평점 개발·운용 종사 인원 7명 포함)
 - 모형 개발 및 운용 경력 5년 이상 인력은 71%

- 당사의 인력구성은 신용조회업 설립요건(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6조)을 충족하고 있음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1항 :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5. 개인신용평가 관련 통계 자료

5.1.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신용등급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1등급	2,308,342	2,556,930	2,873,453
2등급	4,603,427	4,820,155	5,095,580
3등급	5,703,270	5,992,778	6,329,991
4등급	5,927,657	5,829,348	6,126,855
5등급	6,058,544	6,345,854	6,547,330
6등급	4,691,009	4,999,016	5,453,103
7등급	2,793,174	3,055,025	3,296,332
8등급	2,818,846	2,732,544	2,446,195
9등급	1,197,171	1,066,197	919,887
10등급	567,793	457,675	332,672
합계	36,669,233	37,855,522	39,421,398

5.2. 등급별 불량률 분포

신용등급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1등급	0.09%	0.05%	0.04%
2등급	0.16%	0.10%	0.08%
3등급	0.30%	0.20%	0.16%
4등급	0.58%	0.37%	0.30%
5등급	1.14%	0.77%	0.62%
6등급	3.38%	2.79%	2.26%
7등급	10.15%	8.32%	6.66%
8등급	15.95%	13.41%	10.06%
9등급	29.09%	22.44%	18.62%
10등급	57.69%	54.88%	50.62%
전체	4.73%	3.75%	2.82%

※ 불량률은 향후 1년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00년말 불량률은 00년말 대상자의 00+1년도말 실측불량률임

5.3. 신용거래고객의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 대출거래고객

신용등급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1등급	1,384,003	1,518,617	1,653,805
2등급	1,542,679	1,590,278	1,639,281
3등급	1,690,855	1,742,801	1,787,667
4등급	2,227,910	2,217,953	2,206,944
5등급	2,416,168	2,346,884	2,376,130
6등급	2,293,322	2,291,587	2,485,794
7등급	2,029,907	2,224,965	2,438,918
8등급	1,494,446	1,359,519	1,244,380
9등급	778,822	639,127	554,725
10등급	502,480	412,290	308,049
합계	16,360,592	16,344,021	16,695,693

- 카드거래고객

신용등급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1등급	2,279,231	2,532,417	2,853,450
2등급	4,311,931	4,567,490	4,886,563
3등급	4,223,860	4,386,747	4,484,020
4등급	4,017,636	3,995,192	3,920,752
5등급	3,066,732	3,064,827	3,081,646
6등급	2,297,169	2,396,704	2,427,459
7등급	2,076,220	2,078,168	2,189,104
8등급	1,050,891	930,992	857,271
9등급	463,024	411,883	383,142
10등급	335,554	280,993	221,037
합계	24,122,248	24,645,413	25,304,444

6. KCB 개인신용평점 이용 현황

6.1. 이용기관 현황

- 금융회사는 KCB 개인신용평점을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등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의 하나로 활용하며, 절대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거래 가부 의사결정은 각 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11.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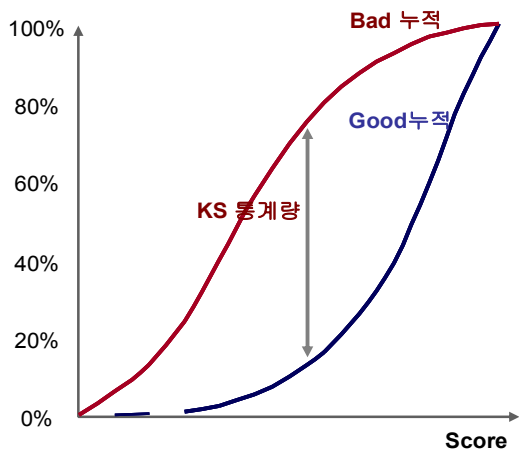
업종	이용기관수	비고
은행	16	
신용카드	6	
할부금융	26	
보험	13	
상호저축은행	47	
상호금융	2,249	농협, 신협, 산림조합의 단위 조합을 개별기관으로 포함함
기타	30	신용회복기구 등
합계	2,387	

[참고] 성능지표 산출원리

- 개인신용평점을 산출하는 통계모형은 우량고객과 불량고객을 잘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고객이 우량할 확률이 크고, 낮은 점수를 받은 고객이 불량할 확률이 클수록 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가진 모형입니다.
 - ※ 예측력 성능지표로 K-S(Kolmogorov-Smirnov) 통계량, Divergence, GINI 계수 등을 활용
-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개인신용평점 분포가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는 성질을 안정성이라고 하며, 등급별 또는 점수대별 고객 구성비가 일정하게 유지될수록 우수한 안정성을 가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안정성 성능지표로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등을 활용

1) K-S(Kolmogorov-Smirnov) 통계량

- K-S는 점수대별로 누적 불량과 누적 우량을 산출하고, 누적 우량비율과 누적 불량비율 차이의 최대값을 가지고 모형의 성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수치가 클수록 변별력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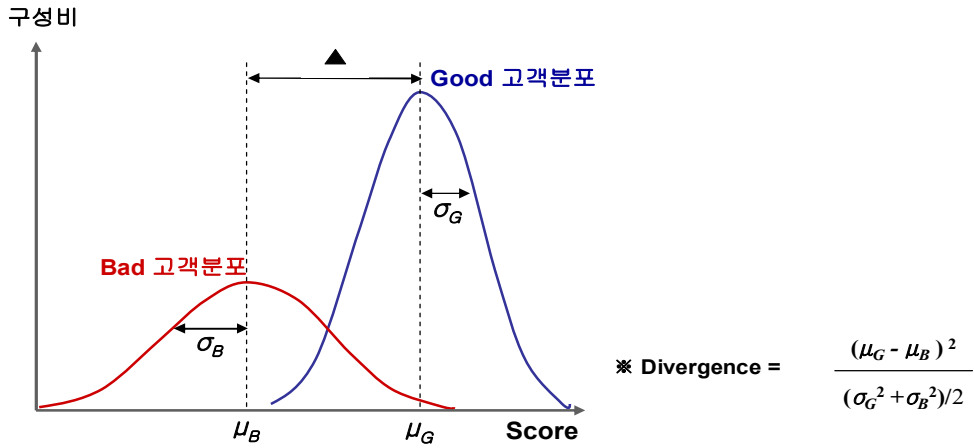


※ K-S =
 $\text{Max} |\text{누적우량구성비} - \text{누적불량구성비}|$
 : 우불량 누적분포 사이의
Maximum Separation

2) Di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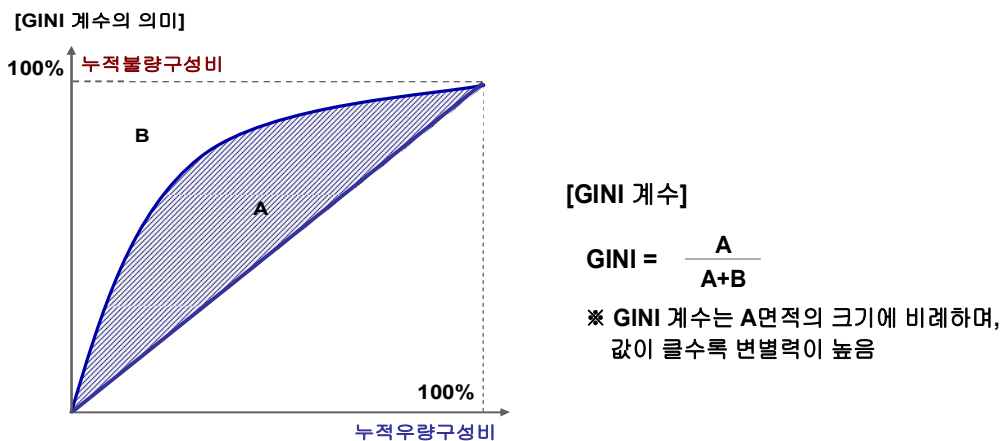
- Divergence는 불량고객 분포와 우량고객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점수대에 따라 불량고객과 우량고객의 각각의 분포간 거리가 멀수록(▲가 클수록), 각 분포가 넓게

퍼지지 않고 집중될수록(σ_G, σ_B 가 작을수록) Divergence의 크기가 커지며, 수치가 클수록 좋은 변별력을 의미합니다.



3) GINI(지니) 계수

- GINI 계수는 누적우량 구성비를 x축으로, 누적불량 구성비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프와 Random Curve사이의 면적의 합에 비례하며, 면적이 넓을수록 변별력이 높습니다.



[참고] C Statistics(C 통계량) : 누적 우·불량 구성비를 x축으로, 누적불량 구성비를 y축으로 한 그래프(Lorenz Curve)의 아래 면적으로,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으며, C-Stat. $\approx 0.5 * (GINI + 1)$ 의 식으로 GINI 계수에서 유추 가능함

4)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모집단 안정성 지표)

- 모집단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시점 대비 현재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며 수치가 클수록 고객군의 성향에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SI = \sum_{\text{점수대별}} (\%O - \%E) \cdot \ln \frac{\%O}{\%E} \quad (\%E : \text{기준시점 구성비}, \%O : \text{현재 구성비})$$

[예제] PSI 계산

점수대	기준시점 고객수	현재 고객수	기준시점 구성비(%E)	현재 구성비(%O)	%O- %E	Ln (%O/%E)	PSI
76~100	600	700	20.0%	21.9%	1.9%	0.0896	0.0017
51~75	1,000	900	33.3%	28.1%	-5.2%	-0.1699	0.0088
26~50	1,000	1,100	33.3%	34.4%	1.0%	0.0308	0.0003
0~25	400	500	13.3%	15.6%	2.3%	0.1586	0.0036
합계	3,000	3,200	100%	100%	-	-	0.0145

→ PSI = 0.0145

Copyrights 2011 KCB, All Rights Reserved.

110-737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